

오늘 할 공부를 충실하게 하자



정 문 선

- 서울 한영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9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렬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급 공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정문선입니다. 저는 수험생활이 합격자 평균보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 합격수기가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여주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여러 해에 걸쳐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합격을 위한 용기를 다시 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I. 수험생활 개괄

저는 대학교 고시반에서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학원강의나 생활비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긴 수험기간을 버티는데 고시반에서 만난 친구들로부터 힘도 얻고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반 내에서 사람들을 필요 이상으로 알고 지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는 분이라면 고시반은 대학교 내에 있어서 고시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친

구들도 만나기 쉽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한지 2년이 지나서야 1차시험에 처음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1차시험을 처음 통과한 해에 제가 1차시험 합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가 1차시험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 다. 그 이후 다시 5급 공채 공부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여 이후에도 늘 1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1차시험에 1,2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1, 2문제로 떨어지는 것을 일찍 극복하지 못한 것이 수험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2문제 차이를 작은 차이가 아닌 큰 차이로 인식하여 PSAT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2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수많은 수험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Ⅲ. 제1차시험 과목별 준비 방법

1. 헌법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5급 공부를 잠시 그만두고 7급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기본 강의를 1차 시험을 위해 따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 1차 시험 응시 전에 헌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적이 없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 강의 말고 7급 강사의 단기간의 최신판례 강의를 1차 시험 직전에 들었습니다. 헌법의 경우 판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최신판례 확인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월정도 부터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기출문제, OX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또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프린트해 놓아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틀리거나 헛갈리는 것들을 관련 조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직전에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헌법과 부속법령을 모두 읽고 시험장에 갔고 시험장에서 조문 위주로만 헌법을 마무리 했습니다. 학부 때 교수님들께서 법학의 객관식 시험은 법조문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헌법 공부에서 법조문 공부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결코 망쳐서는 안 되는 과목이지만 망치기 쉬운 과목입니다. 1교시에 응시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매우 높아서 멘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망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언어논리는 많은 수험생들이 잘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고득점 하지 않는 이상 결코 망하면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의 경우 논리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학원 강의나 학교 수업을 통해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저는 학교수업으로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논리게임 바이블'이란 책을 통해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에서 접할 수 있는 논리퀴즈에 대비했습니다. 일반 독해 문제의 경우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 여름부터 '매3비' 문제집을 이용하여 글의 중심문장을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3비를 끝내고서는 meed, deet용 언어문제집을 구해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

석도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끝냈습니다. 겨울에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언어논리는 단시간에 점수를 올리기 어려우므로 꾸준히 하길 추천 드립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가장 정직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인해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려놓더라도 그 '감'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해석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저득점을 하는 분들은 자료해석 기본강의를 통하여 자료해석이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PSAT을 처음 접할 때 자료해석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자료해석을 단순히 계산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와 본인 스스로 어떤 문제를 풀지 않고 넘겨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소위 말하는 양치기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PSAT모의고사를 푸는 겨울에도 3과목을 1세트로 풀 이후에도 자료해석을 더 풀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계산 실수가 잦았기 때문에 비타민과 같은 계산문제집을 여름부터 풀었습니다. 또한 실수를 하는 포인트와 문제 접근 방법 등을 노트에 적어 정리해두고, 그것을 자주 읽어 보았으며 시험장에서도 보았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이 가장 공부 방법을 찾기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취약한 유형을 집중 공략하는 것을 통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황판단 학원 강의는 PSAT형 인간이 아닌 초심자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에 1차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졌었는데 그 해 여름 상황판단 기본강의를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수강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고집했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SAT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방법을 바꾸거나 초심자의 태도로 돌아가는 용기와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퀴즈 유형의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여 퀴즈 유형만 모아둔 문제집을 따로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PSAT공부 전반과 관련하여 모의고사를 푸는 겨울에 3과목 1세트를 다 풀 이후 체력이 가능하다면 1, 2회 더 푸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1차 시험 당일 날 체력이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언/자/상 3과목을 풀 이후 자료해석 모의고사를 1회 더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따라주면 2회도 풀었습니다. 이는 시험 당일 날 3과목을 모두 집중해서 푸는데 체력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제2차시험 과목별 준비 방법

1. 행정법

제가 생각하는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논점, 판례, 강약조절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해야하고, 판례의 입장을 숙지하고, 여러 논점들 중에서 무엇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지를 의미합니다.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우선 행정법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우면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교수님 사례집 등을 통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이나 최고답안을 보면서 행정법 답안을 어떻게 쓰고 무엇이 문제의 논점이 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고 외운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법 내용만 공부하고 문제의 답안 작성을 나중에 미루는 것은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행정법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러 논점들 중 무엇을 많이 쓰고, 무엇을 적게 쓰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시중의 기출 해설집과 스터디 등을 통해 논점의 강약조절을 보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저는 3순환 기간 동안 세 분의 강사 모의고사를 구하여 두 분의 문제는 답안을 작성하였고, 한 분의 문제는 목차를 잡아 보는 방식으로 답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경제학처럼 정확한 답이 있다기보다는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는지 과정을 중요시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판례의 내용을 몰라 결론을 다르게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탄탄하다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저는 경제학에서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개념 이해와 문제풀이에 괴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를 개념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 개념은 똑바로 이해하되 개념 공부와 더불어 문제풀이 역시 함께 시작하는 것이 수험 적합성이 높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경우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사고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푸는 방법을 안다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답을 제대로 도출해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이 푸는 방법을 안다고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내지 않는다고 들었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확한 답을 도출해 내려면 평소 그러한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적 접근으로 답이 도출되기 어려우면 그래프로 접근하는 등 문제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학적 센스가 부족해서 미시 경제학의 문제풀이 방법이나 자주 하는 실수 등을 노트에 정리해놓고 시험장에서 그 노트를 읽었습니다.

거시경제학의 경우에는 개념을 잘 숙지하고 문제에 어떻게 그 개념들을 활용하는지가 미시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거시 역시 미시처럼 계산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함의 역시 잘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이후에도 교수님 교과서를 발췌해

서라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경제학의 경우 저는 황종휴 강사님의 국제 경제학 트리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님 교과서를 보완해서 읽었고, 국제경제학 기출문제 중에서도 기본적인 유형 문제를 선별하여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금융 보다 무역파트가 저에게 생소했는데 저와 같은 분들은 무역파트는 유형별로 문제접근 방법을 암기하여 각 유형별 문제를 풀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또한 2차 합격을 바라보는 정도의 공부라 되신 것이라면 3순환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학원 강사님의 연습책과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습책은 여러 교과서의 문제도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 강의를 듣고 나면 행정학 내용의 이해도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았습다. 다만, 저에게는 행정학 자체가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답안을 쓰는 것이 공부를 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행정학 답안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의 경우 답안 특강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올해 3순환 기간에 답안특강을 들었는데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학의 주요 개념들 중 키워드의 정의는 제대로 쓰실 정도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안을 쓸 때에는 각 설문 마다 첫째, 둘째, 셋째 등을 쓰는 첫 문장에서 두괄식으로 핵심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의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주는 방법이

설득력과 가독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글의 가독성을 평가받고 싶다면 스테디윌들과 답안을 돌려가며 읽기바랍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과정의 스테디윌 했는데 행정학적 지식을 지적하기 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문장에 표시해달라고 하여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보다면 간결한 문장을 쓰는 연습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학의 경우 3순환 때 답안작성을 소홀히 하는 분들도 봤고 저 역시 매일 쓰지 못했는데, 모의고사를 매일 쓰는 것이 힘드시다면 기출문제라도 꼭 스테디 윌 등을 이용하여 답안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과 답안에 현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강의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애매한 과목이었습니다.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어느 강사님의 책을 보던지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학 예비순환 강의를 듣는 것과 함께 현대정치과정의 동학, 국제정세의 이해, 그림으로 보는 정치사상 등을 정치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읽었습니다. 예비순환을 들을 때에는 정치과정 측면을 집중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1순환 기간에는 국제정치, 정치사상을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2019년 최종합격하는 해의 3순환에는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진영재 교수님의 '정치학 총론'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논문과 여러 강사의 교재를 발췌독 하고, 진영재·윤성이 교수님 공저 '한국정치' 등을 참고하여 공부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스테디윌 통하여 기출문제 답안 작성 스테디윌을 한 것이었습니

다.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답안으로 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학의 공부 범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5. 선택과목-지방행정론

저는 비교적 응시하는 사람이 적은 지방행정론을 선택과목으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정보체계론을 선택하고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 실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바꿀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방행정론 응시자가 적어 답안을 잘 쓴다면 고득점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방행정론 내용을 대략 훑어 본 후에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행정론이 최종합격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잘 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지방행정론을 PSAT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내용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강의는 듣지 않았고, 강사의 책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를 참고하여 공부했습니다. 2019년 3순환 기간에는 2018년 1순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019년 3순환 기준 지방행정론을 강의하는 강사님은 1명뿐이셨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지만 강의와 교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했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강제력을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예상문제를 생각하여 모의고사를 만들어 1회 정도 실전처럼 답안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지방행정론이 앞으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과목에서 고득점을 못하는 분들이라면 지방행정론이 어떤 과목인지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 행정법과 겹치기 때문에 상호보완이 되기 때문입니다.

V. 기타

1. 체력관리

저는 수험 생활에서 체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 연차가 쌓일수록 체력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주 5회는 가려고 노력했고, 1시간 정도 운동했습니다. 2차 시험이 다가왔을 때 1주일 전부터는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근력운동을 했고 유산소 운동은 시간이 촉박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헬스장을 1년 넘게 다니면서 느낀 점은 체력이 증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체력이 달려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주말에 하루 쉬는 날 빼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먹었습니다. 홍삼, 녹용, 각종 비타민 등을 챙겨 먹었습니다. 체력이 달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공부 시간을 뺏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보조 식품도 드시기 바랍니다.

2. 멘탈관리

멘탈관리는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멘탈 관리

를 특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장에서 멘탈관리를 못하고 당황하여 불합격한 경험이 있고, 2차시험 준비 기간에도 계획된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시간에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시험 당일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최종합격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은 “오늘 할 공부를 충실하게 하자.” 였습니다. 시험 날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고 시험 날을 위한 공부도 좋지만, 오늘 공부를 제대로 마친다면 시험 날도 제대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가 어렵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왔으니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망친 것 같은 과목이 있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만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3차면접시험 준비 과정까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VI. 나가며

수험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느낀 점은 5급 공채시험 공부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위축시키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이 먼저 합격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뜻이 확고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친구들도 가족들도 합격에 도달할 때까지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험 기간 동안 자신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너무 간혀 지 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장기간의 레이스를 해야 하는 시험과 무관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같은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시험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휴일을 보내는 것도 서로 힘이 될 것입니다.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시고,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공부방법을 바꿔보기도 하시고, 체력과 멘탈을 잘 관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